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월 25일 13:30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

제 목 : 경제전망(2021.2월)

(붙임) 참 조

[문의처 : 조사국] 경제성장 : 조사총괄팀 Tel. 02-759-4202, 지출부문 : 동향분석팀 Tel. 02-759-4234
고 용 : 고용분석팀 Tel. 02-759-4232, 물 가 : 물가분석부 Tel. 02-759-4231
대외거래 : 국제무역팀 Tel. 02-759-4421, 국외경제 : 국제경제부 Tel. 02-759-5280
[공보관] 02-759-4016, 4135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BANK OF KOREA

(붙임)

경제전망

2021. 2.

조사국

차 례

< 요약 >

I. 대외 여건 점검	1
1. 세계경제	1
2. 주요 전망 전제치	6
II. 거시경제 전망	7
1. 경제성장	7
2. 고 용	11
3. 물 가	12
4. 경상수지	13
<참고> 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...	14

요 약

-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, 경제성장률은 2021년 3.0%, 2022년 2.5% 수준을 나타낼 전망
 -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, 민간소비 개선 지연으로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
 -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 심화, 가계소득 여건 부진 등으로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
 - 설비투자는 IT부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비IT부문도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회복흐름을 지속할 전망
 - 건설투자는 그간의 조정흐름이 마무리되고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
 -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개선,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
 - 향후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
- 취업자수는 2021년 8만명, 2022년 18만명 증가할 전망
 -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되겠으나, 하반기 이후 대면서비스 수요부진 완화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

□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1.3%, 2022년 1.4%로 전망

- 금년중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가운데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 축소, 최근의 전·월세 가격 상승세 등이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

□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1년과 2022년중 각각 640억달러와 620억달러로 전망

-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0년 4%대 중반에서 2021년 3%대 중반, 2022년에는 3%대 초반으로 점진적으로 하락

경제 전망

(%)

	2020			2021 ^{e)}			2022 ^{e)}
	상반	하반	연간	상반	하반	연간	연간
▪ GDP ¹⁾	-0.7	-1.2	-1.0	2.6	3.4	3.0	2.5
민간소비	-4.4	-5.5	-5.0	0.2	3.8	2.0	2.8
설비투자	5.6	8.0	6.8	6.9	3.8	5.3	3.0
지식재산생산물투자	3.3	4.2	3.7	4.1	4.0	4.1	3.5
건설투자	1.7	-1.8	-0.1	-1.2	2.6	0.8	2.1
상품수출	-2.9	1.7	-0.5	13.0	2.0	7.1	2.3
상품수입	-0.9	0.8	0.0	7.6	5.3	6.4	3.3
▪ 취업자수 증감(만명) ¹⁾	-6	-38	-22	-9	26	8	18
▪ 실업률	4.3	3.6	4.0	4.5	3.6	4.0	3.8
▪ 고용률	60.0	60.2	60.1	59.5	60.6	60.0	60.1
▪ 소비자물가 ¹⁾	0.6	0.5	0.5	1.2	1.4	1.3	1.4
식료품·에너지 제외	0.4	0.3	0.4	0.6	1.3	1.0	1.3
농산물·석유류 제외	0.6	0.7	0.7	0.9	1.3	1.1	1.3
▪ 경상수지(억달러)	190	562	753	330	310	640	620

주: 1) 전년동기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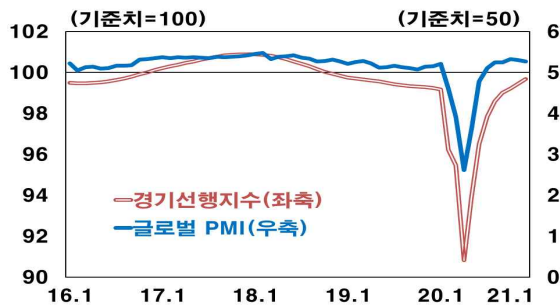
I. 대외 여건 점검

1. 세계경제

□ (성장) 세계경제는 연초에 더딘 회복흐름을 이어갔으나 이후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

-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대응한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회복세가 완만한 모습
- 앞으로 주요국 경기부양책 지속, 백신보급 등이 글로벌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
 - 그러나 백신보급 지연 및 변이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

경기선행지수¹⁾ 및 글로벌 PMI



주: 1) OECD회원국과 6개 신흥국(중국, 브라질, 인도, 러시아, 인도네시아, 남아공) 기준
자료: OECD, JP Morgan

세계경제 성장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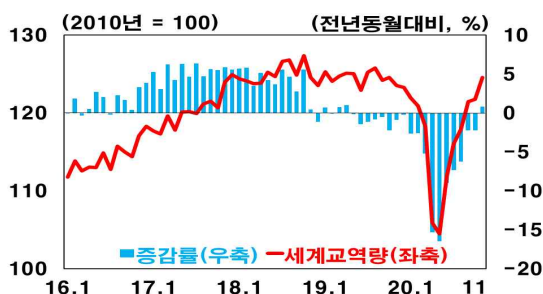
	전망시점	2020 ^{e)} 2021 ^{e)} 2022 ^{e)} (%)		
IMF	21.1월	-3.5	5.5	4.2
(선진국)		-4.9	4.3	3.1
(신흥국)		-2.4	6.3	5.0
OECD	20.12월	-4.2	4.2	3.7
Global Insight	21.2월	-3.7	5.2	4.4
6개 IB 평균	21.2월	-3.3	6.1	4.5

자료: 각 기관

□ (교역) 세계교역은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

- 다만 서비스교역은 백신보급이 국가간 시차를 두고 진행됨에 따라 정상화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세계상품교역량¹⁾



주: 1) 상품수입물량 기준
자료: CPB

세계교역 성장률 전망

	전망시점	2020 ^{e)} 2021 ^{e)} 2022 ^{e)} (%)		
IMF	21.1월	-9.6	8.1	6.3
World Bank	21.1월	-9.5	5.0	5.1
WTO ¹⁾	20.10월	-9.2	7.2	..

주: 1) 상품교역량 기준
자료: 각 기관

□ (미국)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

- 금년 1월 들어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
 - 산업생산도 완만한 증가세 지속
- 향후 백신보급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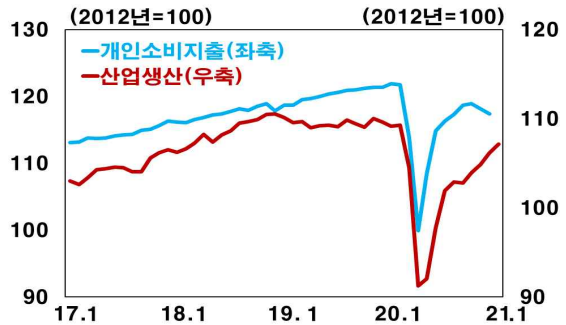
미국 주요 경제지표

(전월대비, %)

	2010월	11월	12월	21.1월
산업생산	1.1	0.9	1.3	0.9
서비스 소비	0.3	-0.3	-0.2	..
소매판매	-0.1	-1.3	-1.0	5.3
실업률	6.9	6.7	6.7	6.3
ISM제조업지수 ¹⁾	58.8	57.7	60.5	58.7
ISM비제조업지수 ¹⁾	56.2	56.8	57.7	58.7

주: 1) 기준치=50
 자료: 연준, 경제분석국, 인구통계국, 노동통계국, ISM

개인소비지출 및 산업생산



자료: 경제분석국, 연준

□ (유로지역) 당분간 부진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다가 회복세가 재개될 전망

- 연초 주요국의 방역조치가 확대·연장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
- 백신보급, ECB의 추가 경기부양조치 등으로 2/4분기 이후 완만한 개선세 예상
 - 다만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확산, 백신공급 지연 등의 리스크 요인이 잠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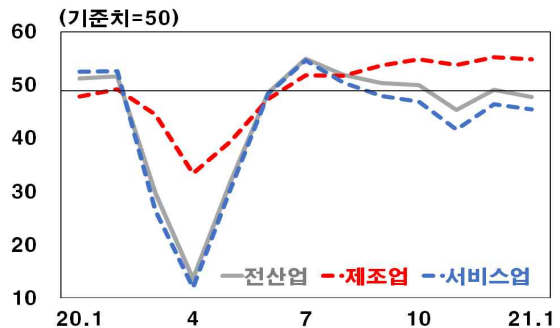
유로지역 주요 경제지표

(전월대비, %)

	2010월	11월	12월	21.1월
산업생산	2.5	2.6	-1.6	..
소매판매	1.4	-5.7	2.0	..
실업률	8.4	8.3	8.3	..
제조업PMI ¹⁾	54.8	53.8	55.2	54.8
서비스PMI ¹⁾	46.9	41.7	46.4	45.4

주: 1) 기준치=50
 자료: EU통계청, IHS Markit

구매관리자지수(PMI)



자료: IHS Markit

□ (일본)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이후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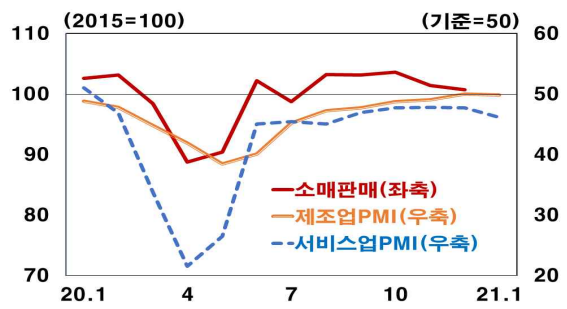
- 지난해 11월 이후 소비 부진으로 개선세가 약화
-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경기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

일본 주요 경제지표

	(전월대비, %)			
	20.10월	11월	12월	21.1월
산업생산	4.0	-0.5	-1.0	..
소매 판매	0.5	-2.1	-0.7	..
수출(통관)	2.8	0.2	0.3	4.4
민간기계수주액 ¹⁾	17.1	1.5	5.2	..
제조업 PMI ²⁾	48.7	49.0	50.0	49.8
서비스업 PMI ²⁾	47.7	47.8	47.7	46.1

주: 1) 선박, 전력 제외 2) 기준치=50
 자료: 경제산업성, 재무성, 내각부, IHS Markit

소매판매 및 PMI



자료: 경제산업성, IHS Markit

□ (중국)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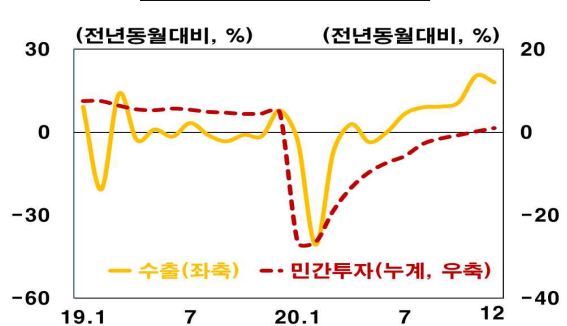
- 최근 투자 확대, 수출 호조 등 견조한 성장세
- 앞으로 쌍순환 성장전략의 본격적인 추진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
 - 미·중 갈등 심화, 기업 부실채권 증가 및 코로나19 재확산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

중국 주요 경제지표

	(전년동월대비, %)			
	20.10월	11월	12월	21.1월
산업생산	6.9	7.0	7.3	..
소매 판매	4.3	5.0	4.6	..
고정투자 ¹⁾	1.8	2.6	2.9	..
수출	10.9	20.6	18.1	..
제조업PMI ²⁾	51.4	52.1	51.9	51.3
서비스업PMI ^{2,3)}	55.5	55.7	54.8	51.1

주: 1) 누계 기준 2) 기준치=50
 3) 서비스업 상업활동지수 기준
 자료: 국가통계국, 해관총서

수출 및 민간투자



자료: 국가통계국

□ (신홍국) 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라 국별로 상이한 경기흐름을 나타낼 전망

- 아세안5국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개선세가 미약할 전망
- 인도는 이동제한조치 완화 및 백신보급 확대로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
 - 1월 수출이 전월에 이어 증가한 가운데 전산업 및 제조업 PMI 모두 높은 수준을 지속

아세안5¹⁾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	2010월	11월	12월	21.1월
산업생산 ²⁾	-1.4	-0.9	0.7	..
소매판매	-8.4	-7.9
수출	1.3	5.7	13.1	..
(대중수출)	6.4	18.2	23.2	..
제조업PMI ³⁾	49.5	49.8	50.4	50.8

주: 1) 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베트남
 2) 인도네시아 제외 3)기준치=50
 자료: 각국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인도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	2010월	11월	12월	21.1월
산업생산	4.2	-2.1	1.0	..
자동차판매	10.5	6.0	0.7	0.4
수출	-5.1	-8.7	0.1	6.2
제조업PMI ¹⁾	58.9	56.3	56.4	57.7
전산업PMI ¹⁾	58.0	56.3	54.9	55.8

주: 1) 기준치=50
 자료: 인도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- 브라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강화, 재정지출 축소 등으로 회복모멘텀이 약화될 전망
-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세 진정,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보일 전망
 -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하락했던 제조업 및 전산업 PMI가 금년 들어 기준치를 다시 상회

브라질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	2010월	11월	12월	21.1월
산업생산	0.3	2.6	8.2	..
소매판매	8.4	3.5	1.1	..
수출	-9.6	-1.7	-0.2	2.2
제조업PMI ¹⁾	66.7	64.0	61.5	56.5
서비스업PMI ¹⁾	52.3	50.9	51.1	47.0

주: 1) 기준치=50
 자료: 브라질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러시아 주요 경제지표

(전년동월대비, %)

	2010월	11월	12월	21.1월
산업생산	-5.7	-1.5	2.1	-2.5
소매판매	-1.4	-3.1	-3.6	-0.1
수출	-23.8	-16.9	-10.4	..
제조업PMI ¹⁾	46.9	46.3	49.7	50.9
전산업PMI ¹⁾	47.1	47.8	48.3	52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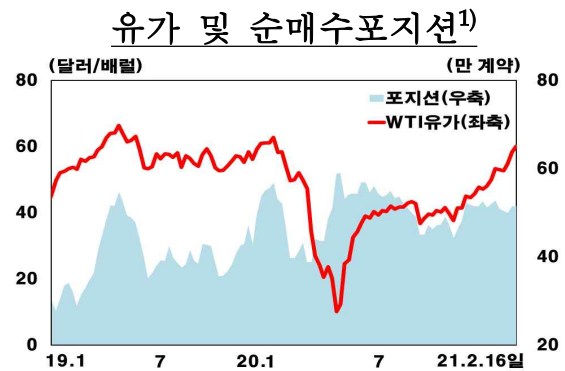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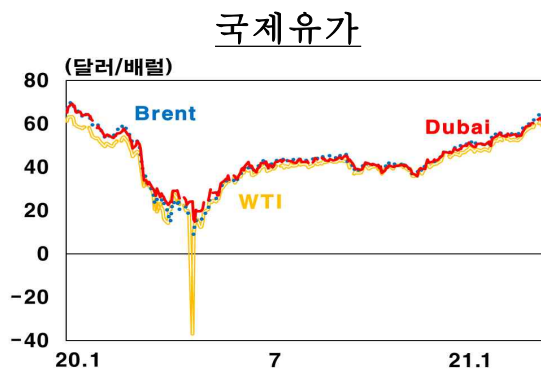
주: 1) 기준치=50
 자료: 러시아 통계청, IHS Markit, CEIC, Bloomberg

□ (국제유가) 국제유가(두바이유 기준)는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60달러 내외 수준으로 상승

- 백신접종 개시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커진 가운데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, 바이든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기대 등이 가세한 데 기인
-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되고 투자자금의 원자재시장 유입도 지속되면서 유가상승 압력으로 작용

□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

- 다만 주요 산유국의 감산 축소, 이란의 수출 재개 가능성 등은 추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


□ 기타원자재(비철금속·곡물)가격은 주요국 제조업 경기회복, 중국 곡물수요 증가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

- 향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단기간내에 급등한 점을 감안하면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(OEF, 21.2월)

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¹

	2021 (달러/배럴)			2022
	상반	하반	연간	
EIA (2.9일)	54.5	52.0	53.2	55.2
IHS (1.15일)	55.3	58.4	56.9	60.1
OEF (2.10일)	55.2	55.8	55.5	56.6

주: 1) 브렌트유 기준, ()내는 전망일

비철금속 및 곡물가격 지수



2. 주요 전망 전제치

(코로나19 사태의 전개양상 시나리오)

- (세계)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
 - 이동제한조치는 올해 봄부터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해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
- (국내)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다가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

- 2021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전개양상과 최근의 주요국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5.0%로 전제
 - 2022년은 3.7% 성장
- 세계교역 신장률은 7.1%로 전제
 - 2022년은 4.5% 증가
- 원유도입단가(기간 평균)는 배럴당 56달러로 전제
 - 2022년은 61달러 수준

전망 전제치

	2020 ^{e)}	2021 ^{e)}			2022 ^{e)}
		상반	하반	연간	
▪ 세계경제 성장률 ¹⁾	-3.7	5.9	4.0	5.0	3.7
미 국	-3.5	4.4	4.3	4.4	2.8
유 로	-6.8	5.0	2.1	3.4	3.2
일 본	-4.8	2.4	2.3	2.4	1.8
중 국	2.3	12.4	4.7	8.1	5.3
▪ 세계교역 신장률 ¹⁾	-9.7	8.9	5.2	7.1	4.5
▪ 원유도입단가(달러/배럴) ²⁾	43	56	57	56	6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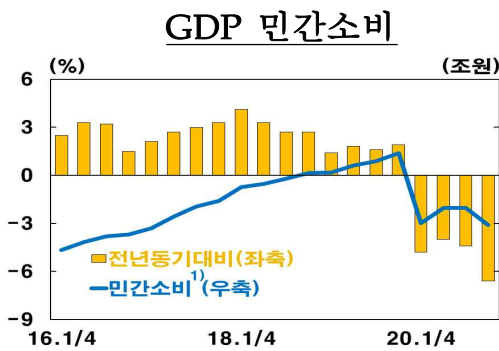
주: 1) 전년동기대비 기준

2) 기간 평균, CIF 기준, 원유도입비중(2019년 기준): 중동산 70%, 여타 3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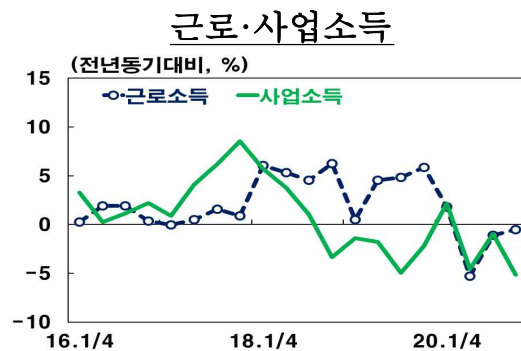
II. 거시경제 전망

1. 경제성장

- (민간소비) 코로나19 확산세 심화, 가계소득 여건 부진 등으로 회복속도가 더딜 전망
 - 부문별로는 대면서비스소비와 국외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제약될 것으로 전망
 - 한편 정부 지원정책, 코로나19 이후 저축 증대 등은 향후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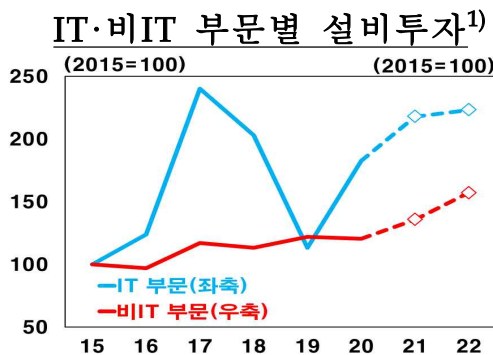


주: 1) GDP 실질금액(계절조정)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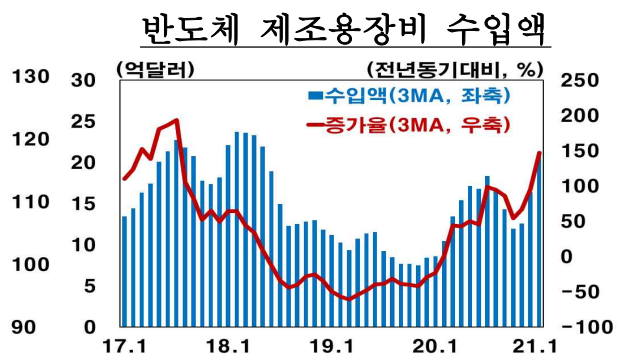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

- (설비투자) IT부문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을 지속할 전망
 - IT부문은 반도체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견조한 투자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
 - 비 IT부문은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되었던 유지·보수 투자에 신성장 부문 투자도 병행되면서 완만히 개선될 전망



주: 1) IT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장비 기준,
비IT는 IT부문 제외
자료: 자체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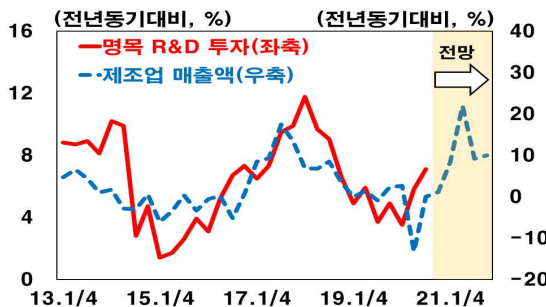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관세청

□ (지식재산생산물투자)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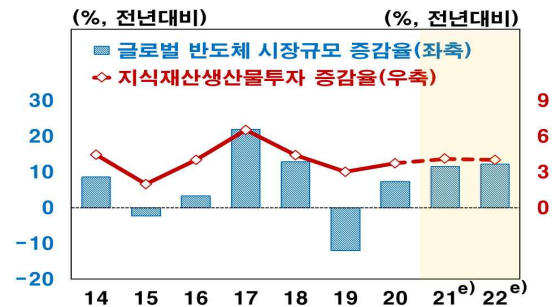
- R&D투자는 기업 매출 회복, 정부 R&D 예산 증가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
- 기타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비대면 수요 확대,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따라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

명목 R&D투자 및 제조업 매출액¹⁾



주: 1) 20.4/4분기 이후는 컨센서스 수치
자료: 한국은행, FnGuide

글로벌 반도체 매출액과 R&D투자¹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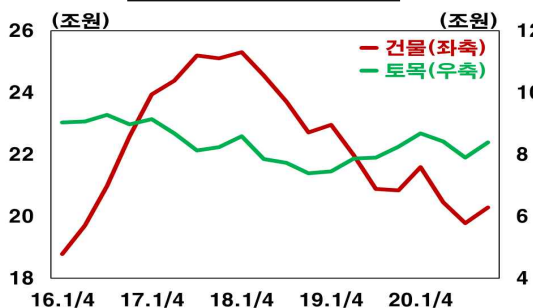


주: 1) 실질 기준, 전망은 조사국 추정
자료: 한국은행, Gartner(20.12월)

□ (건설투자) 그간의 조정흐름이 마무리되고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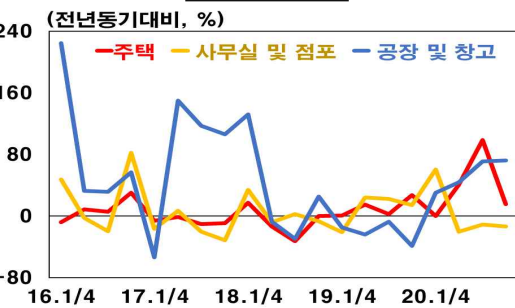
- 주거용 건물은 양호한 선행지표 흐름,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 등을 감안할 때 금년중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
-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건물 등이 증가*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
* 신규수주 증가, 설비투자 회복 및 정부의 민간투자 지원 등에 주로 기인
- 토목은 SOC 예산 증액, 공공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

공종별 건설기성¹⁾



주: 1) 불변 건설기성액(계절조정) 기준
자료: 통계청

건물 수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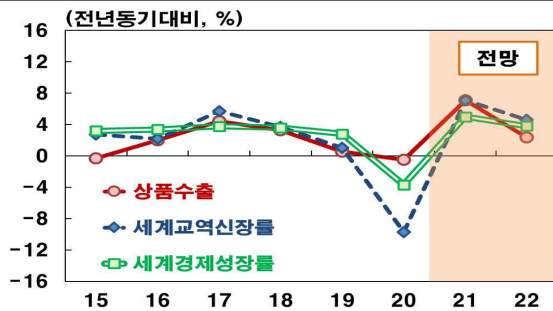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□ (대외거래) 상품수출은 글로벌 경기개선,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

○ 통관수출의 경우 IT 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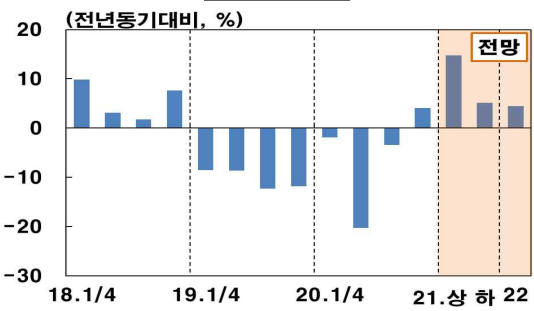
비IT 수출은 세계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자동차, 석유류, 철강·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글로벌 교역 및 성장과 우리 상품수출¹⁾



주: 1) GDP 중 실질 재화수출
자료: 한국은행

통관수출



자료: 한국은행, 관세청

⇒ 경제성장률은 2021년중 3.0%, 2022년중 2.5% 수준을 나타낼 전망

○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, 민간소비 개선 지연으로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

경제성장 전망

(전년동기대비, %)

	2020			2021 ^{e)}			2022 ^{e)}
	상반	하반	연간	상반	하반	연간	연간
GDP	-0.7	-1.2	-1.0	2.6	3.4	3.0	2.5
민간소비	-4.4	-5.5	-5.0	0.2	3.8	2.0	2.8
설비투자	5.6	8.0	6.8	6.9	3.8	5.3	3.0
지식재산생산물투자	3.3	4.2	3.7	4.1	4.0	4.1	3.5
건설투자	1.7	-1.8	-0.1	-1.2	2.6	0.8	2.1
상품수출	-2.9	1.7	-0.5	13.0	2.0	7.1	2.3
상품수입	-0.9	0.8	0.0	7.6	5.3	6.4	3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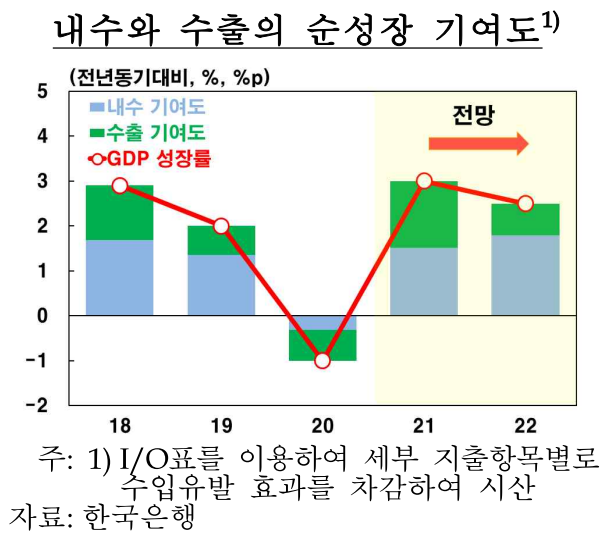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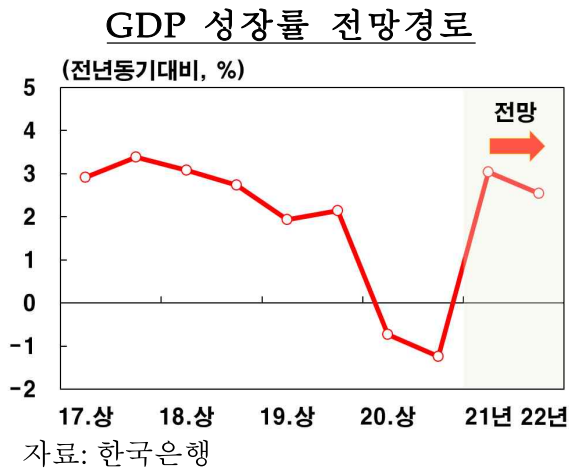
□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,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로 전환될 전망

순성장 기여도(%p)	2020년	2021년 ^{e)}	2022년 ^{e)}
▶ 내 수	-0.3	1.5	1.8
▶ 수 출	-0.7	1.5	0.7

□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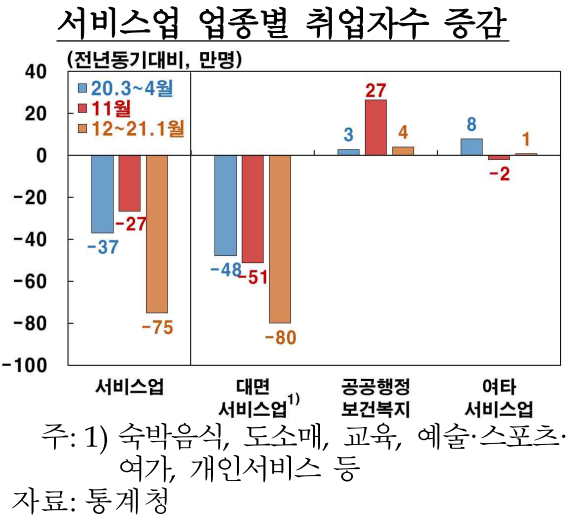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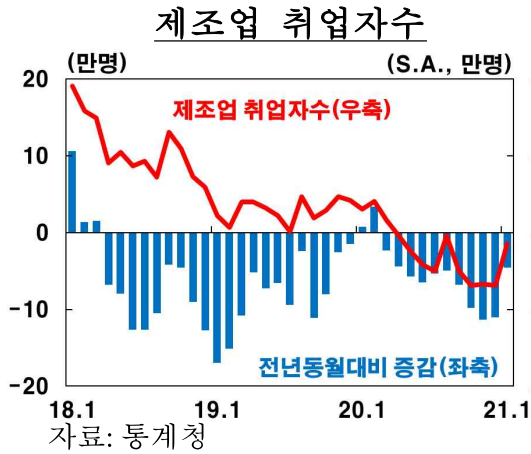
* <참고> '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' 참조

- (상방리스크) ① 코로나19 확산의 조기 진정, ②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세 확대, ③ 국내외 추가 경기부양책
- (하방리스크) ①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, ② 미·중 갈등 심화, ③ 고용여건 개선 지연



2. 고용

-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되겠지만, 하반기 이후 대면서비스 수요부진 완화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
- 제조업 취업자수는 IT부문을 중심으로 업황이 점차 개선되면서 증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
-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당분간 대면서비스업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겠지만, 올해 중후반 이후 감염병 확산세 진정,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


⇒ 취업자수는 2021년중 8만명 증가하고, 2022년중 18만명 증가할 전망

고용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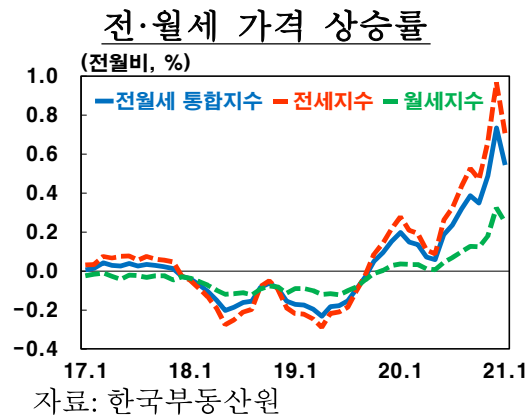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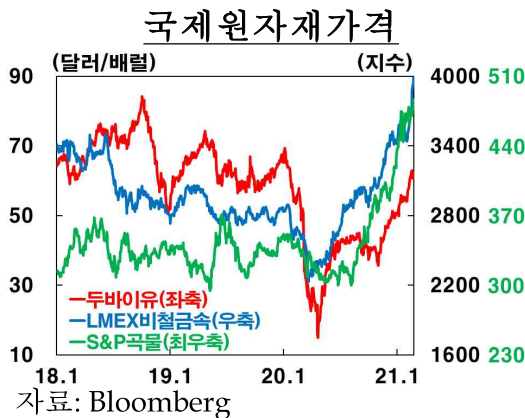
	2020			2021 ^{e)}			2022 ^{e)}
	상반	하반	연간	상반	하반	연간	연간
취업자수 증감 ¹⁾	-6	-38	-22	-9	26	8	18
실업률	4.3	3.6	4.0	4.5	3.6	4.0	3.8
(S.A.)	3.9	4.1	-	4.1	4.0	-	-
고용률 ²⁾	60.0	60.2	60.1	59.5	60.6	60.0	60.1
	[65.9]	[65.9]	[65.9]	[65.3]	[66.1]	[65.7]	[65.7]

주: 1) 전년동기대비

2) 15세 이상, []내는 15~64세(OECD기준)

3. 물 가

-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국내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국제유가가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
- 교육·통신 관련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 축소, 최근의 전·월세 가격 상승세 등도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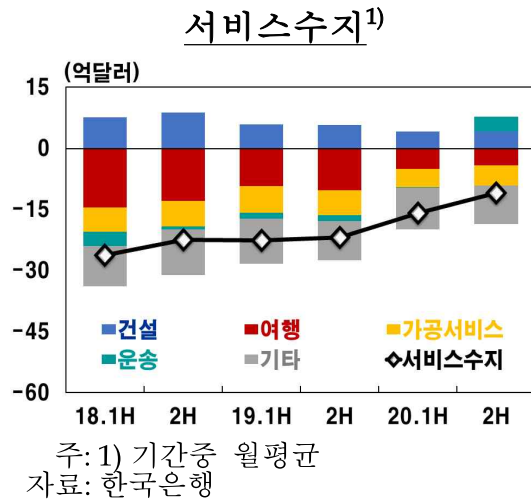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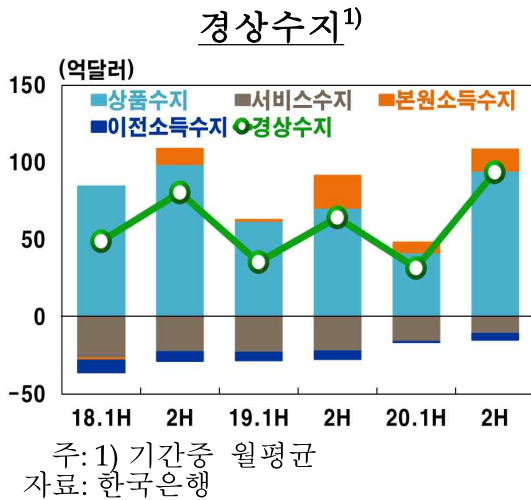
- 내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정부 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지면서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
- ⇒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과 2022년중 각각 1.3%, 1.4%로 전망
- 근원물가 상승률(식료품·에너지 제외)은 2021년과 2022년중 각각 1.0%, 1.3%를 나타낼 전망

물가 전망

	(전년동기대비, %)						
	2020			2021 ^{e)}			2022 ^{e)}
	상반	하반	연간	상반	하반	연간	연간
소비자물가	0.6	0.5	0.5	1.2	1.4	1.3	1.4
식료품·에너지 제외	0.4	0.3	0.4	0.6	1.3	1.0	1.3
농산물·석유류 제외	0.6	0.7	0.7	0.9	1.3	1.1	1.3

4. 경상수지

- 금년중 경상수지는 통관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지난해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
 - 상품수지는 글로벌 경기회복,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늘겠으나,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입도 크게 늘면서 흑자폭이 축소
 - 서비스수지는 글로벌 교역 확대 등으로 운송서비스 흑자가 지속되면서 적자폭이 소폭 축소



⇒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1년 및 2022년중 각각 640억달러, 620억달러로 전망

-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20년 4%대 중반에서 2021년 3%대 중반, 2022년에는 3%대 초반으로 점진적으로 하락

경상수지 전망

	2020		2021 ^{e)}			2022 ^{e)}	
	상반	하반	상반	하반	연간	연간	
경상수지	190	562	330	310	640	620	
상품수지	251	568	410	330	740	730	
서비스·본원·이전소득	-61	-6	-80	-20	-100	-110	

< 참 고 >

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

(시나리오별 전제)

□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이동제한조치 등을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

구 분	세 계	국 내
낙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올해 초중반 이후 빠르게 진정 ▪ 이동제한조치는 올해 봄부터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해 상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세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
기 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 ▪ 이동제한조치는 올해 봄부터 완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올해 하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세가 대체로 완만한 속도로 둔화되다가 올해 중후반 이후 점차 진정
비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내년 초중반 이후에나 점차 진정 ▪ 이동제한조치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내년 중후반경에나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코로나19 확산세가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디게 진정될 것으로 전제

(시나리오별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)

(전년대비, %)	세 계	국 내
낙 관	(2021년) +6.3, (2022년) +4.6	(2021년) +3.8, (2022년) +3.1
기 본	(2021년) +5.0, (2022년) +3.7	(2021년) +3.0, (2022년) +2.5
비 관	(2021년) +3.6, (2022년) +2.8	(2021년) +2.4, (2022년) +1.9